

연변주 신사회계층인사 주제독서 행사 개최

‘서향커피’의 선도자, ‘문화융합’의 추진자, ‘공동체의식’의 전파자가 돼야



▲ 주제독서 행사 현장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통전부, 주총공회, 주신사회계층인사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5년 ‘커피향과 독서·마음 함께 모으기’(咖啡悦读·共萃同心) 연변조선족자치주 신사회계층인사 주제독서 행사가 연변청년창업원에서 열렸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축사에서 석기화는 근년에 주당위와 주정부는 전민열독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독서시설을 부단히 완비했으며 활동 담체를 혁신하고 문화

욕도를 풍부히 하여 ‘서향연변’ 건설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희망했다. 연변의 신사회계층인사들이 ‘서향연변’을 건설하고 민족단결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짊어지고 역할을 발휘하여 앞장서서 ‘커피공간’에 들어가 독서함과 아울러 ‘독서+커피’ 모델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독서가 신사회계층인사들의 선명한 표식이 되고 이로부터 기풍을 선도하는 선행자가 되어야 한다. 전문 우세와 혁신 사유를 발휘하여 연변 문화의 혁신과 발전에 새

로운 동력에너지를 주입하고 융합발전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연변의 민족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새로운 형상을 적극 선전하며 연변의 호감도를 높이고 연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연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최대의 동심원을 잘 그림과 더불어 민족단결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행사중 주당위 통전부에서는 독서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전 주 신사회계층인사들이 ‘커피공간’을 찾아 이곳을 일상의 열독은 물

론 학습과 교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면서 융화하고 상호 공유하는 ‘한마음 타전’으로 가꾸길 바란다. 독서를 통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힘을 섭취하는데 주력하면서 중화경전을 깊이있게 열독하고 연변 이야기를 정독하며 시대의 새로운 장을 널리 읽음과 동시에 독서 과정에서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교류 과정에서 공감대를 결집하길 바란다. ‘커피향과 열독’을 뉴대로 ‘서향커피’의 선도자, ‘문화융합’의 추진자, ‘공동체의식’의 전파자가 되어 책향기와 커피향을 자양분으로 삼아 민족단결의 석류꽃이 그 속에서 더욱 다채롭게 피어나도록 하길 바란다.

가동식에 앞서 행사 참가자들은 연변주 신사회계층인사 실천혁신기지인 연변청년창업원, 연변커피문화봉사체험전시관을 참관했다. 가동식에서 주총공회는 주신사회계층인사연합회 회원 대표에게 도서를 기증했다. 이어진 독서활동에서는 연변대학 왕계동 부교수가 도서《선생복향》에 대한 작품 주제 교류를 하고 중국작가협회 회원이며 연변 작가인 류덕원이 창작 경력과 창작 감수를 공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또 독서 보급 주요 공연과 고전 랑독 행사를 펼쳤다.

길림성당위 통전부, 주당위 통전부, 주총공회 관련 책임자들과 전 주 신사회계층인사 대표, 커피협회 및 독서협회 회원 대표 등 9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 김가혜기자

화룡시문련과 출입국변방검사소 문화 공동 건설 협약



6월 18일, 화룡시문련은 고성리·남평 출입국변방검사소와 문화공동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화룡시문련 주석 류희군은

고성리·남평 출입국변방검사소 대표와 협약서에 서명했다. 해당 협력사업은 제도화된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자원을 변경검사소에 도입하여 직

원들의 정신문화적 요구 충족과 병영문화 건설 향상에 기여하며 정신문명 발전을 도모할 목표로 추진된다.

문화 건설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이고 경찰과 시민들이 협력하여 공동 실행하는 혁신적 실천이다. 고성리와 남평 출입국변방검사소는 오래 동안 국경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했지만 경찰이 근무하는 최전선은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해있어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 자원이 제한되어있다.

화룡시문련 책임일군은 문련은 풍부한 예술가 자원 (작가, 서화가, 촬영가 등) 과 예술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변경검사소 경찰들이 근무시간외에 정서를 함양하고 압력을 해소하기를 바

란다고 밝혔다.

문련과 신시대 이민 관리 문화의 공동 구축과 상호작용은 문화 자원을 제도화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 건설은 새로운 시대에 변방검사소 경찰들의 일상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변방 경찰과 지역의 융합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문예사업을 번영시키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협약 체결식의 개최는 문련과 변경검사소 두 기관의 협력이 일상화, 규범화와 심층적인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바 이 협력이 제공하는 문화적 지원과 정신적 힘은 향후 일선 경찰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글 주동기자 / 사진 화룡시문련

개장국



개고기를 폭 삶아 잘게 찢어서 양념장과 함께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바로 개장국(보신탕)이다. 예전부터 우리 민족은 삼복철이면 더위를 이겨내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었으며 개고기를 보신제로 알고 있었다. 특히 70년대에는 소가 농촌의 제일 큰 인력이고 돼지는 팔아서 돈입을 만들어야 하는 유일한 경제원천이었기에 제일 무난한 것이 개를 잡는 것이었다.

인심 좋은 시골 동네에서 개를 잡으면 온 동네 어른들을 다 모셔 대접하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그러나 개 한마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몇사람의 동네 식구들을 모두 대접하자면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개 한마리에 엄청 많은 물을 부어 폭 끓이고 고기를 가늘게 찢어 몇오리 넣고 국물을 부어 한대접씩 대접하곤 했다. 이렇게 드시면 먹거리가 귀해 힘들던 때 몸의 허기를 달랠 수 있었고 겨울해를 지나 봄, 여름에는 몸보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개혁개방시기 제일 먼저 개고기 음식점이 연길시에 등장하여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근 20년을 흥행하여 오늘날의 개고기 먹자거리가 나오게 되었다. 결국 개고기 먹자거리가 제일 먼

저 우리 음식문화 발전의 선두 역할을 해왔다. 또한 개고기 먹자거리의 형성은 연변지역의 기후,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뜻한 개고기 전골은 긴 겨울의 추위를 달래주고 약선의 효능도 있어 몸을 보양하고 활력을 더해준다.

오늘날 연길시의 개고기 먹자거리는 맛집의 중심지로서 독특한 음식문화를 체험하려는 많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되었다. 연변지역에서 조선족과 함께 살고 있는 많은 한족들,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조선족 음식에 입맛이 사로잡혀 장국과 김치, 탕면과 개장을 조선족 못지 않게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음식 동화현상이 생길 수 있는 그 리면에는 백여년간 우리 민족의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온 우리 민족 음식업자들의 헌신과 사명이 안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조선족의 집거지인 연변을 떠나 조선족 특색음식인 개장국과 김치, 비빔밥을 망라한 우리 음식은 이미 전 동북지역의 음식점장에 파급되었다. 그중 김치와 탕면은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도 크게 환영받는 음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 연변전통음식문화연구회 회장 허향순

‘장백산 미인송 음악축제’ 개막



6월 22일, ‘장백산 미인송 음악축제’가 개막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불빛쇼·야시장이 여름밤을 다채롭게 물들였다. / 길림일보

연변박물관의 ‘당발해 삼채유 녀시용’



민악 드라마《장안의 러지》속 십칠랑(十七娘)이 푸른 대보문 비단옷과 당나라 풍의 반번계 머리로 연변박물관에 있는 ‘당발해 삼채유 녀시용’(唐渤海三彩釉女侍俑) 앞에 섰을 때 천년 전 자신을 마주한 듯했을 것이다.

두 녀인의 아름다움은 닮은 꼴이었다. 십칠랑의 풍성한 머리와 녀시용의 왜타계(倭髻) 모두 당나라 귀족의 풍만한 미학을 반영했다. 녀시용의 통통한 볼, 길게 파인 저고리와 긴 치마 또한 십칠랑의 화려한 의상과 함께 당당한 기품을 빛어냈다.

‘당발해 삼채유 녀시용’은 1988년 화룡시 발해고분에서 출토된 보물급 유물이다. 노랑·초록색 유약을 바른 동그란 대좌 위에 서있는 녀시용은 왜타계 머리를 하고 볼이 통통하며 노란색 저고리에 발끝까지 달는 초록색 비단치마를 걸쳤다. 매듭진 띠가 가슴에서 무릎까지 흘러내리고 두 손은 소매에 감춘 채 공손히 모은 자세이다.

‘당발해 삼채유 녀시용’은 짙은 당나라 토용 풍격을 지닌다. 이러한 류사성은 발해국이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서 당조 문화를 깊이 수용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발해 삼채유 녀시용’은 당풍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 특색을 드러냄을 발견할 수 있다. 당나라 녀토용에 비해 신체 비례가 더 균형적이며 대체로 높이가 더 크다. 머리도 역시 왜타계지만 발해 녀시용은 완만한 곡선을 보여준다. 유약 색상은 상대적으로 단조로워 황·록·갈 세가지 색채 위주이다.

드라마 속 십칠랑부터 박물관 녀시용까지, 우리는 발해와 당나라가 써내려간 문화교류력사의 한 장을 목격할 수 있다.

/ 중국길림넷

“함께 달려요!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길림성 맹인달리기팀 출발!

길림성 최초의 맹인달리기팀인 ‘아름다운 길림맹인달리기팀’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장춘 남호공원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푸른색과 붉은색 팀 조끼를 입은 80여명의 달리기팀 팀원들은 달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길림성맹인협회가 주최한 이번 공익 행사는 사회각계의 지원을 받았다. 체육교사들이 세심하게 지도해 안전을 보장했고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 보조원으로 맹인달리기팀원들의 ‘눈’이 되었다. 여러 달리기 협회의 잇단 참여로 전반 코스에 따뜻한 응원의 물결이 넘쳐흘렀다.

이 달리기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행사 준비 단계부터 달리기 보조원들은 맹인달리기팀 팀원들과 시각을 조율한 소통을 시작했다. 미세한 손톱 조절부터 정확한 구령까지 그들은 남호공원 구석구석을 누비며 모든 코너와 평탄한 구간을 확인하여 맹인달리기팀 팀원들 마음속에 안전한 ‘지도’를 새겨주었다. 긴 준비 과정에서 사랑과 신뢰의 씨앗 또한 조용히 싹텄다.



▲ 길림성 맹인달리기팀 선수들

달리기 신호가 울리자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선이 되었다. 푸른 조끼를 입은 맹인달리기팀 팀원들은 붉은 조끼를 입은 달리기 보조원들의 인도하에 용기 내어 뛰기 시작했다. 인파 속 양걸림도 북소리를 멈추고 감탄했고 백발로인들은 “이런 행사야말로 색다

른 길림을 보여준다.”면서 감탄했다. 이번 행사가 가져다준 의미는 행사 자체를 넘어섰다. 장애인과 정상인들이 같은 달림길에서 공명할 때 평등과 포용의 씨앗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구경하는 인파중에는 감동의 순간을 휴대폰으로 기록하는 사

람, 자발적으로 따라 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랑의 파문이 퍼져나갔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큰 힘을 받았어요.” 한 달리기 보조원은 맹인 동료들이 달림길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모습에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자원봉사자는 “그들이 달리기에서 보여준 삶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같다.”면서 감탄했다.

길림성맹인협회 왕기 회장은 “모두가 맹인들의 모습을 보고 장애인이라 하는 아름다운 삶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한명이 결승선을 넘을 때 큰 함성과 박수가 터졌다. 이번 달리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광명을 안겨주는 문을 열었고 평등과 포용으로 도시의 따뜻함을 증명했다. 이 사랑의 등불이 더 많은 이의 앞길을 비추고 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피어나길 기대한다.

/ 길림일보